15분 지각 땐 벌금 88만원 '아스널 룰'

인조이 EPL

아스널 훈련장 벌금 목록 유출 화제
구단마다 나름의 규정과 징계 문화
근태는 기본…옷차림·전화통화까지
전 선덜랜드 감독은 케첩 못 먹게 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아르센 웽거 감독(가운데)이 지난달 1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앞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아스널은 철저한 벌금 규정으로 팀의 기강을 잡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어느 구단에나 선수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 있게 마련이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훈련시간에 지각하는 선수들에게 고민 없이 '벌금을 내라'고 명령하며 시간약속에는 철저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퍼거슨 감독의 밑에서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냈던 로이 킨도 감독으로 부임하는 구단마다 스승처럼 똑같이 1분이라도 지각하는 선수들에게는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뒤 구단이 추천하는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구단마다 조금씩은 다른 벌금 규정 리스트는 일반 팬들에게는 비공개로 돼있으나, 아스널 훈련장을 방문했던 한 팬이 사진을 찍어서 인증한 아스널 선수들의 벌금 규정 리스트가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훈련장 내 전화통화 금지! '부적합한 패션'도 벌금?

유출된 아스널 훈련장 벌금 규정 리스트에는 선수들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이를 어길 경우 물어야 할 벌금액도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다. 아스널 선수들은 단체훈련 또는 회복훈련, 마사지 등에 지각할 시 15분 이하는 250파운드(약 44만원), 15분 이상은 500파운드(약 88만원)를 내야 한다. 주급을 수천만 원 이상 받는 선수들에게는 작은 금액이지만, 일반 팬들로선 경악할 액수다. 이밖에 눈에 뛰는 규정으로는 '탈의실 밖 부적합한 옷차림' 벌금 100파운드(약 17만원), '건물 내 전화통화(문자는 허용)' 벌금 500파운드 등이 있다.

또한 이 리스트 밑에는 '선수들의 벌금은 매달 말일 1군 탈의실 모니터 화면에 공개되며, 이 공지 후 7일 내로 벌금을 수비수 페어 메르테자커에게 전달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7일 내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은 2배로 오른다'는 문구와 '아르센 웽거의 지시'라는 메시지와 함께 웽거 감독의 서명까지 있다.

●선수 식단까지 챙겨야 하는 EPL 감독

올 시즌 초 웽거 감독이 아스널의 모든 선수들에게 내린 '긴 소매 유니폼 착용' 지시를 어기고 매튜 플라미니가 반팔을 입고 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구단 사정이 유출된 것에 대해 웽거 감독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구단에서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가 유감스럽다. 보안이 더 철저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파올로 디카니오 전 선덜랜드 감독은 훈련장에서 선수들의 식단에 케첩을 금지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디카니오는 "선덜랜드에 처음 왔을 때 선수들의 몸 상태가 엉망이었다. 식단조차 내가 관리해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 아스널 훈련장 벌금 규정 리스트
〈100파운드=약 17만원〉

▲경기 스쿼드 미포함 선수들의 홈경기 불참=1000파운드(감독 허락 시 예외)
▲훈련시간 지각=15분 이내 250파운드, 15분 이상 500파운드
▲회복훈련 및 마사지 시간 지각=15분 이내 250파운드, 15분 이상 500파운드
▲선수단 이동시간 지각(원정경기 시)=500파운드
▲경기일 회의 및 식사시간 지각=250파운드
▲경기일 유니폼 미지참=100파운드
▲탈의실 밖 부적합한 옷차림=100파운드
▲탈의실 안 야외신발 착용=100파운드
▲치료실 내 신문·노트북·핸드폰 소지=100파운드
▲2주 연속 소변샘플 미제출=200파운드
▲건물 내 전화통화(문자는 허용)=500파운드
▲구단 공식행사 불참=500파운드

K리그 제주의 경기 원칙은 '다다익선'

숏·패스 빈도·크로스 최대한 늘리기
"많이 띄우고 쏴야 골 확률도 높아져"

제주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초반 레이스에서 2승1무2패(승점 7)로 7위지만 5위 수원삼성, 6위 부산 아이파크와 승점이 같다. 선전하고 있지만, 제주 박경훈 감독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름의 원칙에 입각한 경기를 추구한다. '다다익선'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숏, 패스 빈도, 크로스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볼 소유를 길게 하며 경기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지만, 결실(득점)을 낼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박 감독의 생각이다.

제주 구단에는 경기력향상실이라는 별도 부서(팀)가 있다. 이곳에서 매 경기 영상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을 하는데, 득점이라는 확률 게임에서 앞서려면 많은 숏과 패스, 크로스가 받쳐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 감독은 "숏은 경기당 15~16회를 해야 한다. 크로스도 15회 이상 띄워야 한다. 유효슛 횟수는 우리가 선두권인데, 슛 자체가 적다. 슛이 많아야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라운드까지 제주는 59차례 슛을 했고, 25개가 상대 골문을 향했다. 그 중 4골(5실점)을 뽑았다. 실제 제주의 경기당 유효슛(5개)은 정규리그 선두 울산현대(6개), 2위 전북현대(6.4개)에 크게 밀리지 않지만, 전체 슛 빈도는 떨어진다. 그간 울산은 67개, 전북은 66개의 슛을 했다.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4라운드 FC서울 원정(0-2 패) 때 11개에 그친 슛이 지난 주말 5라운드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선 15개로 늘었다. 유효슛 역시 6회로 늘었다.

제주는 올 시즌 4위권 진입을 노린다. 5경기씩 끊어 홈 3경기 중 2승, 원정 2경기 중 1승을 챙기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제주 구단 관계자도 "비 시즌 중 선수단이 많이 바뀌었지만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며 경기력 향상을 기대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호날두, 메시와 어깨 나란히?

R. 마드리드, 도르트문트와 챔스리그 8강 1차전
13골 호날두 1골만 추가하면 한 시즌 최다골 타이

2013~201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1차전이 막을 올렸다. 2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선 FC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가 맞붙었고,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격돌했다. 3일에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첼시(잉글랜드)의 대결이 펼쳐진다.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는 2012~2013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와 4강전에서 4차례나 혈투를 벌였다. 조별리그에서부터 도르트문트가 1승1무로 우세했다. 도르트문트는 4강전에서도 홈 1차전 4-1 압승을 바탕으로 원정 2차전 0-2 패배를 넘어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시즌 8강에선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지난 시즌 4강전에 맹활약한 도르트문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경고누적으로 3일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권도간과 수보티지, 슈멜츠 등 주축 수비수들의 부상 역시 도르트문트로선 치명적이다. 반면 '득점기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안정적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호날두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3골(7경기)을 기록했다. 3일 경기에서 1골만 추가하면, 2012~2013시즌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세웠던 한 시즌 최다골(14골)과 타이를 이룬다.

PSG와 첼시는 2004~2005시즌 이 대회 조별리그에서 만났다. 당시에는 첼시의 실력이 압도적이었다. PSG는 홈에서 0-3으로 완패했던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은 PSG를 변화시켰다. 2011년 카타르 투자청이 인수한 뒤로 PSG는 세계적인 부자구단이 됐다. 2012년에는 세계적인 골잡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까지 영입했다. 이브라히모비치(10골)는 호날두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득점 2위를 달리며 '복수혈전'의 선봉에 서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2014브라질월드컵 진품 트로피 4~6일 방한 행사

2014브라질월드컵 우승국에 주어질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진품 트로피(사진)가 한국에 온다.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는 1일 "월드컵 진품 트로피 방한행사를 4~6일 갖는다"고 밝혔다. 2006년 시작돼 3회째를 맞은 월드컵 트로피 투어는 진품 트로피를 전 세계 축구팬들이 가까이서 직접 보며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감동을 나누기 위한 행사다. 한국은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회 연속 진품 트로피를 맞게 됐다. 진품 트로피가 4일 전세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하면 미디어 공개 행사 후 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6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기성용 웨스트햄전 78분간 활약…팀은 1-2로 져

선덜랜드 기성용(25)이 1일(한국시간)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78분간 활약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팀도 1-2로 패해 6승7무17패(승점 25), 19위로 여전히 강등권을 맴돌았다.